

## 김정은각하의 정치실력에 전세계가 경탄하고있다

### 날로 고조되는 국제사회계의 흠모 열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명망있는 국가 정치가》, 이것이 오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만민의 칭송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실황중계로 비울수 있었던 그의 너무도 멋진 지도자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정치계의 거성) 이시다. 그이께서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시고 비상한 결단과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캄보지신문 《크메르 타임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어난 정치실력을 찬양한 글의 일부분이다. 지금 국제사회계에서는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령도자로 만민의 애호와 찬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많은 나라의 정계인사들과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을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독출한 외교력을 과시하시는분》, 《자신감을 안고 국

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속한 정치가》, 《전략적으로 능숙하신 지도자》로 격찬하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라오스신문 《폼람빠삭손라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조선은 경제건설과 국방분야에서의 비약적발전과 과감하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에 의한 세계평화보장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국가령도자로서의 김정은각하의 능력을 잘 알수 있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정치가, 창조적능력

이 높고 실천력이 완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인식이다. 방글라데시통신공정연구원 조 위원장은 조선이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를 대대로 모신 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로 존경받고계신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그의 세련된 정치실력에 전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보다 훌륭한 미래에로 비약할것이다. 로세아의 인터넷홈페이지 《빠트리오르 모스크바》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세계의 초점을 모으시는것은 그의 출중한 령도력과 비상한 전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 때문이다. 이처럼 멋진분이사니 조선도 인류가 경탄하는 별세상으로 전변되고있다. 멋진 정치, 멋진 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찬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

### 중국에서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 대련시를 방문하신 1주에 즈음하여 방추도민관에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우리나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련시방문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중국 대련시인민내외우호협회, 대련시인민정부, 대련방추도민관집단유한공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와 총영사관 성원들 등이 전시회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축하연설들이 있던 후 개막식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대련시인민내외우호협회 회장은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련시당위원회와 시청부는 조선의 수령들께서 다녀가신 력사적인 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였다. 전시회가 새 세대들에게 중조친선의 전통을 알려주는 훌륭한 계기로 되기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 비서장은 이번 전시회는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중국인민의 흠모의 정을 반영하고있다. 중국의 령도자들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마련하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의 수령들을 중국인민은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위인칭송의 세계가 응축된 조선의 만년국보

###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외국의 벗들이 격찬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집대성되어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이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체스끄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제1부위원장 루카슈 브로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람관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수령들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려는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이 하나하나의 선물마다에 뜨겁게 스며나와있다. 정녕 국제친선전람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다.

로세아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위원장 아나톨리 들가체브는 참관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전시된 선물들에는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마음이 어리여어리 그 가치를 무엇으로써도 평가할수 없다. 세계에는 이름난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조선의 수령들처럼 자신들께서 받으신 선물들을 인민의 소유로 되게 하여주시는 위인은 알지 못한다. 국제친선전람관은 단순한 선물전시관이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위인칭송의 세계 응축된 사회주의조선의 만년국보이다. 대대로 절출한 수령들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대표단 단장 예프르 로드리게스는 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해

어 다시금 알게 되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는 세계적인 위인들이시다. 전람관은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 주는 뜻깊은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전람관에 전시된 많은 선물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절세위인들께 조선과의 친선적인 나라를 지어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사들까지 진귀한 선물들을 올리리었다. 이를 통해서도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분들이신가를 잘 알수 있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속해나가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본사기자

##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밝힌 시정연설

###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가 성명, 담화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이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로세아평화 및 통일당 정치집행위원회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과업들이 철저히 관철되며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위엄을 더욱 높이 떨치기 바란다 고 밝혔다. 로세아인족구국전선 위원장 예. 엠. 스키르노브는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밝힌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위대한 력사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보낸다 고 강조했다.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정부의 립장을 환영한다.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성명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유간다전국집행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유간다전국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이 명백히 천명되어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마자르 로동당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환영한다.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성명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유간다전국집행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유간다전국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해 공화국은 조선반도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고 있다. 미국은 6.12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이제라도 대조성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 조치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자강도보건산소공급소 새로 건설

자강도보건산소공급소가 새로 일떠섰다. 강계시에 특색있게 건설된 공급소에는 액체산소저장탱크, 산소고압, 산소저압기화기, 충전장 등 질 좋은 보건산소를 생산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자강도에 보건산소공급소가 훌륭히 일떠서으로써 도 안의 병원들에게 질신했던 필요한 의료용산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도태가 마련되었다. 기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조선로동당의 은정이 깃든 설비들을 위한 사물을 다룰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을 비롯하여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적전람회-2019 개막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적전람회-2019가 개막되었다. 마감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람회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 도인민위원회산하 가구, 마감건재연구 및 생산단위들에서 내놓은 250여건의 연구성과와 제품이 실물, 도해 등으로 전시되었다. 마감건재의 주제화와 질 제고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전람회에서는 마감건재의 연구와 생산과

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소개선전과 기술 교류가 있게 된다. 개막식이 1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사를 리종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모든 건축물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주제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

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마감건재의 질을 더욱 높이며 성과와 경험들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 사대적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가 계속 이어나가는데 있어 전쟁의 위험이 절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달던 과거에 되돌아가는 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바로잡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인 화해단합과 평화변영, 통일을 안아오자면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리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의를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키는것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데 대해 밝히고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길 높은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지만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망치게 한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운명개척을 위한 오랜 기간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 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해결할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지난해에 이룩된 북남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사변들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 세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 공동 등장출하여 민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었으며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지금 남한의 각계층속에 서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남선언들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면서 북남선언들

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갈 결의들을 저저마다 피력하고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한미실무팀》 회의라하는것을 빌려놓았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이 요구하는것처럼 북남관계, 민족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의에 배치되는 사대적근성, 외세의존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여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선언들을 리행해나가는 길에 겨레의 화해단합과 평화변영, 통일이 있다.

김주혁

## 민족공조실현에 평화번영과 통일이 있다

지금 조선반도를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려는 우리 겨레의 열의는 날이 높아가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내외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서버릴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민족이 공조한다는것은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자기 민족끼리 힘과 보조를 맞추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서로 굳게 공조하여 투쟁해나갈 때만이 외세의 침략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갈수 있다. 민족공조는 평화번영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

족의 기본투쟁방식이다. 조선의 문명에서 전략적리의를 추구하는 외세는 조선반도에 나타난 화해의 분위기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반통일책동을 일삼고있다. 또한 북남관계문제들에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어떤 일에서나 당사자들끼리 마주앉아야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법이다. 조국통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다. 여기에 외세가 개입하면 가뜩이나 어렵고 복잡한 통일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이 빠져게 된다. 더욱이 외세는 민족분열의 장본인으로서 그의 간섭과 방해가 계속되는 경우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은 언제가도 이룩될수

없다. 조국통일은 철저히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관점과 립장에서 당사자들인 북과 남의 동족끼리 마주앉아 협의하고 방도를 모색해나가야 이룩될수 있다. 외세가 아무리 간섭과 방해의 차단을 내리워도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고 뜻과 지혜를 합치고 협력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민족공조의 확고한 실현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은 평화번영의 새시대인 오늘의 전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과제이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

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온 겨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간직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배치되는 사대와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공동의 애국위업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에 국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그 누구라 할것없이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조를 실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길에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는것은 민족자주의 어질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온 겨레가 민족공조의 위력으로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 북남선언들의 고수, 리행은 곧 민족공조의 실현과정이다.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선에 맞게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동족끼리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거족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성철



평양에는 보통강이 있다.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안을 따라 현대적인 건물이 사방으로 뻗어있고 주택지구들과 공공건물들, 공원, 유원지들이 자리잡고있다.

강기슭을 덮고있는 갖가지 나무들과 여러가지 색깔의 꽃밭들, 꽃밭들은 수림화, 원림화된 5월의 보통강변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보통강변을 따라가면 봉화산의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류달리 눈길을 끈다. 기념탑을 찾으면 보통강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전세대들은 감회가 깊어지고 후세대들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된다.

강을 걸으며 평양의 면모를 전변시키고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한 보통강변의 새 역사를 기념탑은 길이 전하고있다.

원래 보통강은 봉화산동쪽기슭을 구불구불 감돌아 보통별을 적시며 대동강으로 흘렀다.

넉넉이 강물이 범람하여 이 일대의 주민들은 늘 큰물피해를 당하곤 하였다. 《재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라는것이 보통강의 대명사였다.

큰물이 나면 토성광과 서평양 일대, 대타령지구가 온통 물란리를 겪는것은 레사사였다.

1942년에도 큰물이 나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적, 물질피해를 입었다. 2 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되고 1 000여호의 농가가 침수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시절 보통별을 오가시며 큰물때문에 보통강주변의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사무치게 마음속에 새기시었다. 항일의 나날에도 보통강사람들의 눈물겨운

# 전변의 역사를 전하며 보통강은 흐른다

처지를 잊은적 없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를 구상하시었다. 어렵고 복잡한 건축사업으로 다방하신 속에서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현지를 찾으시어 설계도면도 보아주시고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치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주시었다.

해방후 이듬해인 주제 35 (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이 있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격려사에서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보통강개수공사를 하여 평양을 지켜내며 앞으로 보통강일대를 풍족하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보통강개수공사의 과제는 도시안으로 흐르는 물길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봉화산허리를 가로질러 흐르게 하는것으로서 통수로 를 내어 새 물길을 형성하고 여러개의 제방을 쌓으며 강바닥을 파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체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공사를 하나하나 완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 공사를 그 누가 해주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자신 의손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에

를 끝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 시민들은 일제가 10년이나 끌면서 하지 못한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동안에 결속하였다.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봉화산기슭으로부터 팔팔다리를 지나 곧추 대동강과 잇닿은 강물길이 생겨나게 되었고 보통강변은 영원히 큰물피해를 모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애국의 첫 삽에서 보통강변의 전변의 역사를 시작되였다.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봉화거리, 비파거리가 건설되고 인

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키움솨하며 자리잡았다.

강줄기를 따라 운하가 형성되고 강변에는 공원, 유원지들이 곳곳에 꾸러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 이상과 국토건설의 전변의 역사를 빛나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보통강변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게 되었다.

락원거리, 창광거리, 천리마거리(2계단)가 새로 형성되고 청류관, 창광원, 빙상관과 같은 현대적인 금양봉사시설, 문화후생시설, 체육시설들이 일떠섰다.



보통강변의 전변의 역사를 전하며 보통강은 흐른다

## 과학교육발전을 위한 길에서

### 통속적이며 뜻이 깊은 말씀으로

주제104(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을 앞둔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새로 웅장하게 건설된 건축물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에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정책이 훌륭히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며 누구나 과학기술전당에 오면 우리 당이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러 그이께서는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에로 가려면 누구나

### 교육자양성의 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었다.

원소개설,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개진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재능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완성하며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 데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유용하게 꾸어내며, 문화혁명의 거점단계 훌륭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 미래를 앞당겨오는 과학기술과 교육중시정치

현시대는 첨단과학기술과 그것을 소유한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식경제시대이다.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과학중시, 교육중시의 거센 열풍을 일으켜나가오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과학으로 비

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인제 육성사업에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과학기술중시, 교육중시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공화국을 하루빨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국가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난해 정초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고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편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 라고도 따듯한 갈고 금방배기를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 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그토록 기뻐하시었다.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어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사업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새로 개진된 평양무게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과학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신 그의 크나큰 로고와 그대로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공화국의 도처에서 전진과 변혁이 이룩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주제철생산기지들이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되고있으며 전력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대적적기술혁신운동으로 전력생산능력을 높이는 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혁신의 불길은 교육부문에 서도 세차라 타올라 나라의

각도, 시, 군에서 본보기 학교들을 꾸리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이 우리 당의 과학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자기 부문과 단위의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교육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시던 사적인 시정연설에서도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 기풍이 확고한 중흥으로 되게 하며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야하야 한다고 하시었다.

튼튼한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이 있고 인재육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져 있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절망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과학기술중시, 교육중시의 열풍속에 비약하며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

##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 공예 《조선의 기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제 106(2017)년 1월 파이썬 아바타라이트 파이썬 알수혜이니 쿠웨이트 아흐마드칭부 및 무역회사 총사장이 올린 선물이다.

총사장은 TV와 인터넷를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깊이 매혹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선물을 올릴것을 결심한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해방전 우리 나라의 한 애국적인 화가가 조선지도를 호랑이로 형상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선물의 종자로 정하였다.

총사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자기의 다함없는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재료로 순금을 선택하고 쿠웨이트에서 국가수반들과 명인들을 위한 기념품들과 선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에 주문하여 선물을 만들도록 하였다.



본사기자



첨단교육설비들을 리용하여 높은 교수능력을 소유해가고있는 평양교원대학의 학생들

###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세계의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이 우리 당의 과학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자기 부문과 단위의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교육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보고에서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요 우리 혁명의 존망에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이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제재,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때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지며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의 력사가 실적으로 증명한 진리이다.

지난 항일대전의 나날 유적대원들은 국가적주방도 정무원의 지원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제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었고 자력으로 연결투쟁과 같은 병기도 만들어 적들과 싸워 이겼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었던 그 어려운 나날 북구건설의 기지를 창조하고 현대적인 공장들과 도시와 농촌을 일떠세워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떨친것도 바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역경을 이겨내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올 수 있었던것도 자력갱생의 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력사적토대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의 정당성이 뚜렷이 확고되었다.

적대세력들이 조이는 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솟아오른 령명거리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새형의 트랙토르와 자동차, 무게도전차와 무게도전차, 아담기지에서 려이어 울려오는 주제철 생산소식들...

본사기자 고성호



# 인민사랑이 비낀 건설의 대번영기

무릇 건축은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제부라고도 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에는 해당 시대의 모습이 비껴가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는 건축물의 발전사라고도 하는 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건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비상히 발전하고 있다.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사살림집,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유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 나갈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케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가하고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공화국에서의 건축의 본질과 특징,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그리고 어떻게 건설의 대번영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그 밑바탕에 초석으로 놓여있는것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인민사랑이다.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쓰고살 건축물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라고 하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에 그대로 비껴여있다.

몇해전에 건설된 려명거리에 새겨진 이야기는 오늘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통남산을 언덕나 마을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선헌명의 려명은 해돋는 통남산에서 밝아온다는 뜻에서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부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철두철미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걸쳐 무려 1390여

건의 형성안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하늘의 못별도 조으는 밤에도 려명거리형성안의 집과 선을 그어주시며 지도하시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며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하고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은 그이께서 오르신것인 70종짜리 살림집과 그 높이를 가늠해보신 부엌의 찬장,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과 살림집기단층에 뿌리내린 꽃과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이의 높은 뜻이 평양중등학교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유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 등에서 꽃피었고 오늘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

준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에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집대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공화국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훌륭히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대번영기를 창조하고있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축은 물론 복지조성과 불장식 지어 간판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며 개개의 건축물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적실력앞에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은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크나큰 포부와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열렬한 인민사랑이 낳은 귀중한 창조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에서 창조되는 바로 여기에 인민적인 건축으로서의 주체건축의 참모습이 있다.

나라의 국력을 떨치는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속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가요 《한마음 따르렵니다》이다.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신념의 기둥으로 믿고 그이의 령도를 따르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총정의 마음이 가사와 곡에 잘 반영되어있다.

노래는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대국수의 나날 비분에 몸부림치는 온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지은 노래이다.

에도의 나날 그 누구보다 가슴아프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추위속에서 호상을 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더 염려해주시었고 장군님을 잃은 인민들의 아픈 마음속상처를 더 헤아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서 사람들은 천백배의 힘을 가다듬게 되었으며 억척불변한 신념의 기둥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면 신심이 넘쳐나고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실생활을 통하여 새겨안게 되었다.

수령님 못 잊어 간절 한 마음에 장군님 그리워 라는 가슴에 천백배 힘을 안겨주셨네 신념의 기둥 되어주셨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신심이 넘쳐나니 다 신심이 넘쳐나니다

수령님 한평생 키우신 인민을 장군님 한생 아끼신 인민을 쓰거이 안아 보살피시네 사랑과 정을 다해주시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행복이 끝없습니다 행복이 끝없습니다

수령님 높은 뜻 하늘에 새기고 장군님 그 뜻을 기치로 드시고 붉은 기 높이 휘날리시네 태양의 위광 빛내가시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한마음 따르렵니다 한마음 따르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가신다.

지난 시기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극적사태들이 빚어졌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주의의 위업은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계승되었으며 인민의 요람인 사회주의 제도가 굳건히 고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과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공화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사회주의의 최후승리에로 인민들을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승리만 있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똑똑한 인민들은 그이를 한마음 따르고 받들어갈 것이다. 세를 다지고있을 것이다.

수령님 높은 뜻 하늘에 새기고 장군님 그 뜻을 기치로 드시고 붉은 기 높이 휘날리시네 태양의 위광 빛내가시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행복이 끝없습니다 행복이 끝없습니다

수령님 높은 뜻 하늘에 새기고 장군님 그 뜻을 기치로 드시고 붉은 기 높이 휘날리시네 태양의 위광 빛내가시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행복이 끝없습니다 행복이 끝없습니다

수령님 높은 뜻 하늘에 새기고 장군님 그 뜻을 기치로 드시고 붉은 기 높이 휘날리시네 태양의 위광 빛내가시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러 행복이 끝없습니다 행복이 끝없습니다



류경원

만속에서 나오는 온도 20℃ 이상 되는 더운 샘을 온천이라고 한다. 온천은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염소이온을 비롯하여 인체에 유익한 여러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공화국에는 정성온천, 석탄온천, 송흥온천, 신천온천, 배천온천 등 온천자원이 풍부하다.

사철 샘솟는 온천지대에는 휴양소, 료양소와 같은 시설들이 갖추어져있어 근로자들의 휴식과 치료를 도모하고있다.

향정복도 경성군에 있는 온포휴양소만 하여도 사람들이 건강증진과 생활에 좋은 온포온천으로 하여 이름난 곳이다.

인민들의 건강장수와 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지난해 7월 온포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그곳을 찾으신어 온천의 용출량과 용출구와 욕탕의 온도며 휴양소의 수용능력 등을 상세히 료해 하신 그이께서는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하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유명한 온천지대인 온포휴양소일대를 인민들의 편의와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가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된 휴양지로 특색있게 잘 꾸려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휴양을 와서 충분한 휴식도 하고 온천치료도 할수 있도록 모든 봉사당들을 다 갖춘 종합봉사기지,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하게 꾸리도록 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들이 온천자원을 리용하여도 보다 좋고 훌륭한 조건에서 휴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밤길을 걸으시며 휴양소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풍부한 온천자원을 다양하게 개발 리용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온천지대에서 사람들이 휴식과 치료를 하며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포휴양소를 다녀오신 때로부터 한달후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신 끝에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본보기온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할 구상을 안으시고 그 일대를 찾으신것이다.

그이께서 연구하신데 의하면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

돈이 극히 적은 고온천이며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작용과 치료효능이 높다. 그리고 온천수성분은 오염성평가지표인 암모니움과 아질산, 질산이온들과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온천으로 평가되었다.

몇해전에는 겨울철에 스키관광을 즐길수 있는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도록 하시었고 또한 동해명승 명사십리에는 여름철 해수욕관광을 할수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꾸리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신 그이께서 풍치수려한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로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수 있는 온천관광개발을 위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양덕군 온천지대 일대가 온천관광지의 최적지로 정하여지게 되었다.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전국의 본보기로, 국가를 대표할수 있는 급으로 높은 수준에서 하여 기준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렇게 하여 나라의 모든 온천지들을 개변하도록 하자는것이 그이의 의도이다.

양덕지구는 높은 산을 끼고있으며 겨울철의 기온이 낮고 눈도 많이 내리는 고장이다.

산간지대의 자연리리적조건과 환경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관광지구주변에 스키장까지 건설하여 낮에는 스키를 타고 저녁에는 온천욕을 하면서 휴식하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스키장건설을 위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었다.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 온천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온천지를 찾아 높고낮은 산발들과 험한 명길을 헤치시며 애민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신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온천관광지구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온천도 하고 스키도 할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가 양덕군 온천지구 기념비적장조물로, 인민의 소유물로 일떠서고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창조물들, 인민의 재부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백두산기슭의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량강도 삼지연군에는 감자가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지난 4월 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또다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며 감자가루품질비설치정형과 감자가루생산정형을 비롯한 공장운영실태를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의 관리운영과 경영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군의 지대특성에 맞는 감자종자를 육종하여 실수율을 높이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감자저장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공장에서서 수천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여 산갈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지

심혈과 로고,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었고 감자산도 감자농사에서 동장훈을 부를 그날을 그리시며

바쳐오신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이의 헌신의 자욱을 따라 고산파수종합농장과 같은 청춘호원에 과일바다가 펼쳐지고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의 하류

감자저장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공장에서서 수천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여 산갈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지

감자가루산.

북부고산지대에서 처음 보는 감자작황과 감자가루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동해기슭에 펼쳐진 《이채어경》

장에 물고기들이 쏟아져내리는 등 희한한 풍경이 생겨나게 되었다.

2년전 9월 어느 한 시험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고개를 숙인 벼바다가 출렁이는 풍경을 바라보시며 풍년이 든 농장이

벌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변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시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풍치가

아름다운것을 풍경이라고 부르며 명소를 찾고 훌륭한 풍경을 보며 락을 즐기곤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 땅에 인민사랑의 심경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류단은 풍경들을 보시며 자신의 기쁨을 느끼신다.

인민의 기쁨이 커가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풍경을 하나라도 더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고계신다.

인민의 행복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열사봉투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사랑의 풍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정대경

아름다운것을 풍경이라고 부르며 명소를 찾고 훌륭한 풍경을 보며 락을 즐기곤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 땅에 인민사랑의 심경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류단은 풍경들을 보시며 자신의 기쁨을 느끼신다.

인민의 기쁨이 커가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풍경을 하나라도 더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고계신다.

인민의 행복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열사봉투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사랑의 풍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 인민사랑이 펼친 희한한 풍경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신발들을 생산하고있는 류원신발공장



동해기슭에 펼쳐진 《이채어경》



고산파수종합농장에서

###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계부

최금주







자력갱생을 변혁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세인을 경탄시킨 천리마대고조



공화국이 걸어온 역사는 자체의 힘으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승리와 번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 자력갱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가련한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파괴된 속에서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1957년부터 인민경제발전5개년(1957-1961) 계획수행에 들어서게 되었다. 5개년계획은 3개년계획에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었다. 자금도, 자재도, 노력도 모자랐고 인민들의 생활도 편지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도움받을데도 없었고 도와주겠다는 나라도 별로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2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이 토의되었다.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대한 과업 앞에 겁을 먹은 일부 일꾼들은 전망계획을 낮추거나 전진속도를 좀 늦추자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서 돈을 꾸어오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결코 전진속도를 늦출수 없었고 더우기 남의 돈을 꾸어다가 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었다. 회의에서는 1957년도 생산계획을 정하는데서 심각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이해 강철생산계획을 정하는 문제가 주요론점으로 되었다. 1만톤의 강재가 더 있어야 하였는데 해결방도가 서지 않았다. 이때 강선제강소 기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구체적인 타산을 못해보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증산해 보겠다고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가우신 어조로 강선의 동무들이 결심하고 달려붙으면 꼭 해낼거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을 찾아가 호소하겠다고 하시면서 강재 1만톤 더 생산할것을 전원회의결정서에 박아넣고 그것을 해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자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솥계 조직 동원한다면 높이 세운 인민

경제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긴장한 강재문제를 풀기 위하여 주체45(19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를 찾으신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해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맥을 놓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동무들에게 기대를 걸고있다, 우리는 지난날 어렵게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할것이 많은 조건에서 남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열발자국 걸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 뛰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톤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격려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자들은 1만톤의 강재를 기이더 생산할 굳은 결의를 말씀드리었다.

강재 1만톤을 증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로의 증보수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용해시간을 단축하며 설비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증산예비가 나왔다. 우리가 일떠서야 나라가 허리를 펴나!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강선이 숨쉬고 전진하였다. 분피압연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두대치기를 받기하였을 때 보수주의자들은 나라의 외아들을 분피압연기 못가면 되면서 과연 누가 책임질수 있는가며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압연공들은 끝내 두대치기에 성공하였다. 제강소의 정문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거느린 불수 없었다. 교대시간이 되면 발목을 든 가정부인들과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할때 로동자들은 스스로 남아 다음 교대를 돕거나 출퇴근시간까지 아까와 현장휴게실에서 죽잠을 자곤 하였다. 제강소에는 당시 구내증기기관차가 몇대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직장마다 연료와 반제품을 실어나르다니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면 어느 직장에서나 기관차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마주 달려가 화차를 끌어오곤 하였다. 분피압연직장에 강피를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하는 강철직장 로동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나섰다. 진용원작업반장은 차치당 9시간 걸린 용해시간을 4시간 25분으로 단축하였다.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첫 천리마작업반이지만 그때에 진용원작업반은 사람들속에서 《신입용해공작업반》으로 불리었다. 강선의 로동자들은 강제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간 6만톤 공칭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강선에서 타오르게 되었으며 강선은 천리마대진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든 력사의 고장으로 되었다. 조선은 《천리마의 나라》로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게 되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천리마를 떠돌던 강선의 위훈은 오늘날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신의 주시권의 봉사관리소 채하조선옷점은 전국조선옷 전시회들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곤 하는 실력있는 옷점이다. 조선옷을 잘 만듦으로 소문이 난 이곳 옷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이곳 조선옷점을 찾았다.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조선옷을 지어 주기 위해 예쓰는 김금실책임자의 열정에 넘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조선옷을 잘 만드는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 들려주었다. 그가 어느 한 교육단위에서 옷재단을 하는 방법을 배우던 때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였다. 기술을 배우고 양복을 만들던 그가 조선옷재단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그는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우리 민족성을 더욱 활짝 꽃

피워주시려고 나라의 곳곳에 조선옷점들을 꾸려도록 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어려와서였다. 그는 조국의 사랑에 적은 힘이나마 보답하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조선옷을 잘 만들어 민족의 자랑을 떨치는데 한생을 바쳐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조선옷재단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것은 말처럼 험치 않았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다다가 조선옷재단과 관련한 지식도 부족하였다. 그는 하루빨리 조선옷만드는 묘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정서와 미감을 조선옷도안창작에 반영하기 위해애 모을 박았다. 그리고 민족의상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배우기도 하였다. 예쁜 보iami 있어 그가 정

성껏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는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하였다. 사람들은 연분홍진달래색 같이 독특하게 꽃수를 놓은 치마저고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에게 미술에 취미가 있지 않냐고 묻기까지 하였다. 첫 성과를 거둔 그는 실력을 부단히 높여 그후에 진행 된 전시회들에 여러차례 1등을 하였다. 특히 조선옷제작에서 그는 남편의 비단위에 꽃들을 아름답게 수놓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치마저고리는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곳 조선옷점에 대한 소문은 한일두입 건너 온 시내에 퍼져갔다.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일터를 조선옷점답게 멋들어지게 개건하고 그들의 마음에 꼭 들 때까지 옷을 수정해 주면서 봉사성을 더욱 높여

나갔다. 조선옷점을 즐겨 찾는 단골손님들이 늘어날수록 그는 일감이 많아져 밤을 새우며 일하였다. 힘들지 않은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금실책임자는 전통적인 민족옷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새겨볼수록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고 생각 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취재수첩을 덮었지 만 그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조선옷의 가장 우수한 특성은 고상한것이다. 조선치마저고리에는 밝고 선명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감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섬세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무늬를 통해서 조선옷의 우수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 오늘도 채하조선옷점에서는 온 나라에 민족의 향취가 더욱 짙게 풍기게 하기 위하여 조선옷마대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조국강산, 인민이 누리는 행복을 정성담아 수 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선옷에 비낀 애국의 마음

주체철생산을 늘여 간다

공화국의 금속공업부문 기업소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철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황해철련합기업소에서 쇠물분리기, 출선구와 광제도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련속 용해를 보장하고있다. 로조철업반에서는 원료와 연료의 특성에 맞게 장입량을 바로 정하고 열풍온도와 열풍압, 산소주입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있으며 원로작업반, 배관작업반에서는 생산공정간 편계를 강화하여 주체철생산성과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산소분리기 2직장에서는 압축기,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간직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전하여 대형산소분리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으며 보장부문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주체철생산에 크게 한몫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쇠물생산량을 늘이고있다. 용광로직장에서는 각이한 원료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로 운영방법을 받아들이고 랭각계통의 기술제조사업을 힘써 돌리면서 쇠물생산량을 늘이고있다. 또한 로바닥을 랭소질내화벽돌로 교체하고 원로공급계통에 정량공급기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산소열법용광로의 기술지표를 개선해나가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철생산에서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이 각이한 정황들을 제때에 능란하게 처리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소유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합리적인 로작업방법들을 실천에 도입하고있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떨쳐나선 용해공들은 따라안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합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 애국의 열의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철전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주체철생산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쇠물생산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흥범식



인민이 주인된 나라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공화국의 현실에 국제사회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풍요공화국 보건의 및 인구는 조선방문기간에 받은 인상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들의 설비들이 현대적이고 의사의 의료기술수준도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처럼 훌륭한 병원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안내고 마음껏 치료를 받고있는것이였다. 조선에서는 병원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아래 녀성들이 누리고있는 행복넘친 생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원으로 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로씨야의 인터넷트렌드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직업과 지식정도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종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있다. 모든 법과 정책이 근로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고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하나 꾸러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과 같은 현실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에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다. 본사기자

그러나 평범한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보급을 통하여 원격대학교까지 받는 다나 놀랐기만 하다. 이것이 바로 근로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구 향유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에서 로동자들이 착취의 수단,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받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국가의 인민적시책속에 일터의 주인이 되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현명한 영도밑에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의 국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

각지 온실남새생산기지들에서 남새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온실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고있다. 이곳 농장에서는 온실들의 관리운영과 작물배치,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면서 효과가 확증된 저형순환생수관수기술, 자동화온실관리와 같은 앞선 기술과 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고있다. 또한 온실형별 온도변화자료에 기초하여 작물배치를 계단식으로 짜고들고있으며 각종 유기질비료를 넣어주

는 방법으로 토양의 생산능력을 높이고있다. 하여 많은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모성육을 촉진하고 질 좋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육아원, 예육원, 초등학교들과 상업봉사망들에 보내주고있다. 형제산구역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고리형순환생수관수기술, 자동화온실관리와 같은 앞선 기술과 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고있다. 각 도들에서도 남새온실들에 농업과학기술보급을 꾸려놓고 국가망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자료와 다매체전집

물보급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있다. 많은 시, 군들에서 남새온실들에 통합생산체제와 자동조종체제를 도입하여 영농물자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온실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내고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많은 시, 군들에서 남새온실들에 통합생산체제와 자동조종체제를 도입하여 영농물자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온실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내고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는 우량종자들을 확보하여 시, 군들에 제때에 공급하고있으며 오이재배를 비롯한 다수확재배기술을 적극 받아들

여 정보당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서 좋은 결실을 보고있다. 염주, 태란, 안악, 중화, 금야, 함주군을 비롯한 각지에 꾸러진 온실남새생산기지에서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온실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온실바닥과 벽체, 다짐질 등을 리용한 립체재배방법으로 단위면적당 남새생산량을 훨씬 늘이고있다. 온실남새생산기지들에서 생산된 영양가 높고 신선한 남새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여





### 공화국의 첫 세계생물권보호구—백두산지구

백두산지구가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된 때로부터 30년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넓이 것들이 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과 더불어 드넓은 지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됨으로써 백두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으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백두산생물권보호구는 백두산과 그 주변의 넓은 지역에 자리잡고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량강도 삼지연군의 영역을 포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생물권보호구는 학술적으로나 생물권보호에 의의가 있는 일정한 지역의 동식물상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감시하며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생태계가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되어 보존되도록 한다. 생물권보호구는

중심지역, 완충지역, 이행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를 진행한다.

세계생물권보호구는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사람들의 경제문화생활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국제적인 협력속에서 통일적으로 연관시켜 진행할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유네스코가 설정하고있는 국제적인 생물권보호지역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세계의 120여개 나라의 680여개 지역이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었으며 서로 국제적인 생물권보호구망을 형성하고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면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백두산생물권보호구는 오랜 시기를 거쳐오면서 여러번에 걸치는 화산분출로 동식물상이 부단히 갱신되어왔다.

보호구는 기후대별소스에 따르는 식물종구성상태가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아시아대륙과 북극지대 연결된 고산지대로서 엄혹한 기후와 지질 및 지리적환경에 적응된 독특한 동물상도 이루고있다. 수십종의 짐승류와 백수십종의 새류를 비롯하여 수백종의 척추동물과 천수백종의 무척추동물이 관찰되어 말 그대로 하나의 자연동물원을 이루고있다.

현재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와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가 세계생물권보호구인 백두산지구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와 연구, 관리와 보호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 꿈과 희망을 꽃피워간다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5월 3일에 개막된 이번 경기대회는 수영, 탁구, 정구 3가지종목의 경기로 나뉘어 19일까지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인기를 끈 것은 6일부터 10일까지

심으로 그를 축하해주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애호가탁구경기장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 은혜로운 품이 있어

장애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정신육체적약점으로 하여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치부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도 사회주의제도의 혜택 아래 한결의 그늘이 없이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장애자들의 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해왔다.

공화국에서의 장애자보호법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고 따뜻한 품어주며 정신적 및 육체적회복, 교육과 체육활동, 예술활동 등 장애자들의 활동조건을 법적으로 보다 충분히 보장해주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법정으로 되고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하여 공화국의 장애자선수들과 친선

### 경탄을 자아낸 탁구기술

짧게 깎아쳐넣기 한 공, 그것을 재치있게 받아넘기는 상대편선수, 넘어오는 공을 오른쪽으로 강한 걸어치기하여 점수를 올리는 선수...

《야!—》

《잘한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우승의 꿈을 안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장애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다양한 기술수법들로 훌륭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기자들과 만난 홍수경 조선장애자체육협회 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경기에는 지난 시



### 보람의 마음으로

이번에 진행된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장애자 부류 탁구경기에서 1등을 하고보니 생각되는것이 많다.

칠성각 료리사로 일하던 나는 20여년전 뜻하지 않게 인팔을 잃게 되었다. 이름난 료리사로 될 꿈을 안고있던 내가 한팔을 잃었으니 순간 인생의 좌절감에 사로잡혀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은 나를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안아주었다.

내가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한

### 민족음식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이웃들과 동지들의 따뜻한 정은 나를 탁구장으로 떠밀었으며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여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에 참가하여 여러번 순위권에 들게 되었고 이번에는 1등의 시상대에 오르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경기성과로 나를 위하여 정과 사랑을 기울여준 고마운 사람들



본사기자 김진혁

년 옛날부터 단일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마을의 위치를 정할 때 그 지대의 지형조건에 의거하면서도 농업생산에 편리하게 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마을의 위치를 정할 때 《배산림수》 즉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다시말하여 마을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그 앞으로

물이 흘러야 마을이 안착되고 생산활동에 편리하며 생활에도 유리하고 자연풍지도 두루어주게 된다는것이다.

《배산림수》, 《자좌오향》으로 일러왔다. 즉 살림집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게 짓는것이였다. 여기에 동쪽으로 대문을 내면 그 이상 살림집으로서의 나무랄데 없

### 사화

### 평양성의 군사 (1)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이 목청을 높여 《왜 모이려 하니?》 한마디 뚝뚝 물으니 《글쎄요.》 라고 곁에 있는 사람이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이 그를 마주 보며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그럴 때 머리를 휙 수건으로 짚곤 동인 증후군이 허를 한번 끝갈 차고나서 제법 아는 소리를 하였다.

《림정장을 건너선 왜놈들이 이제 우리 평양성을 치겠으니 그래서 모이려는거겠지.》

이 말에 역시 무명수건을 쓴 같은때의 사람이 놀란 듯 눈을 치켰다.

《허허, 방비는 누가 한단 말이고 나라님도 곧 평양성을 떠나신다는데...》

《그건 뜬소릴세. 평양마저 왜놈들에게 내주면 나라가 결판날테데 설마 그러기야 할라구...》

《어이구 자네 못 봤나? 북문은 밤마다 량반님네들의 피난집자리들이 빠지는걸.》

《그런 놈들이야 갈래면 가라지.》

《상감님도 이곳을 뜨시고 량반들도 빠지고 판관마저 다 가버리면 평양은 누가 지켜?》

《우리 백성들이 지키지.》

《그럼 우리끼리 맨손으로? 예라, 성의 방비는 누가 지켜?》

는것으로 여기었다.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으면 살림방의 채광과 좋은 겨울을 즐기 않으며 또 여름에 그닥 덥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배산림수》한 마을에 《자좌오향》한 집을 짓고 사는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기고 이러한 풍습을 대대손손 이어왔다.

본사기자

### 평양성사람들은 며칠전에 이곳으로 몰려와서 당장 무슨 일을 벌였처럼 험악한 기세를 보였다....

평양성사람들은 며칠전에 이곳으로 몰려와서 당장 무슨 일을 벌였처럼 험악한 기세를 보였다....

《설마 상감님께서...》

《모두 무릎을 꿇어라!》

청놀은 저렷저렷한 소리가 울리자 수만의 군중은 땅에 엎드렸다.

《철을 하라!》고 웨치는 소리의 울림이 멎기도 전인 줄에 후날 거지말을 했다

대통령관간에서는 어느새 울긋불긋한 관복차림의 관리들이 늘어섰고 그우에 곧 통포와 면류판을 쓴 임금이 나와 앉았다. 위엄이 서리



### 민족음식

### 숙떡

숙떡은 숙을 짓썰어서 떡 반죽에 넣고 빻아 만든 떡이다.

숙떡은 쫄깃쫄깃하고 청신한 속향기가 있어 맛이 좋으며 빨리 쉬거나 굳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떡에는 없는 비타민A와 C, 팽귄질을 보태주므로 영양학적인 의의가 클뿐아니라 알카리성식품인 숙과 산성식품인 흰쌀가루를 섞어 만들기때문에 산-알카리평형을 맞추는데도 의의가 있다.

본사기자

### 시간에 따르는 인체의 활동변화

- 0-4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해산하는 시간
  - 2시: 자동차운전수들의 시력이 제일 나빠지는 시간
  - 3-4시: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서늘하게 일하는 시간
  - 4-5시: 혈압이 제일 낮아지는 시간
  - 9시: 주사에 대한 피부의 감각이 제일 약한 시간
  - 9-10시: 손힘이 제일 세지는 시간
  - 10-12시: 뇌수의 활동이 제일 활발한 시간
  - 13시: 위산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시간(음식을 먹지 않아도)
  - 13시 30분: 근육의 능력이 제일 높아지는 시간
  - 13-16시: 손재간이 제일 많이 발휘되는 시간
  - 16-18시: 폐가 제일 강하게 호흡하는 시간
  - 17-19시: 미각, 청각, 후각이 제일 예민해지는 시간
  - 18-20시: 화장품의 유효성분들이 피부에 제일 잘 스며드는 시간
  - 20-22시: 혼자 있기가 제일 싫어지는 시간
  - 22시: 면역체통의 기능이 제일 높은 시간
- 본사기자